

The Locked Closet

84
5/2 AII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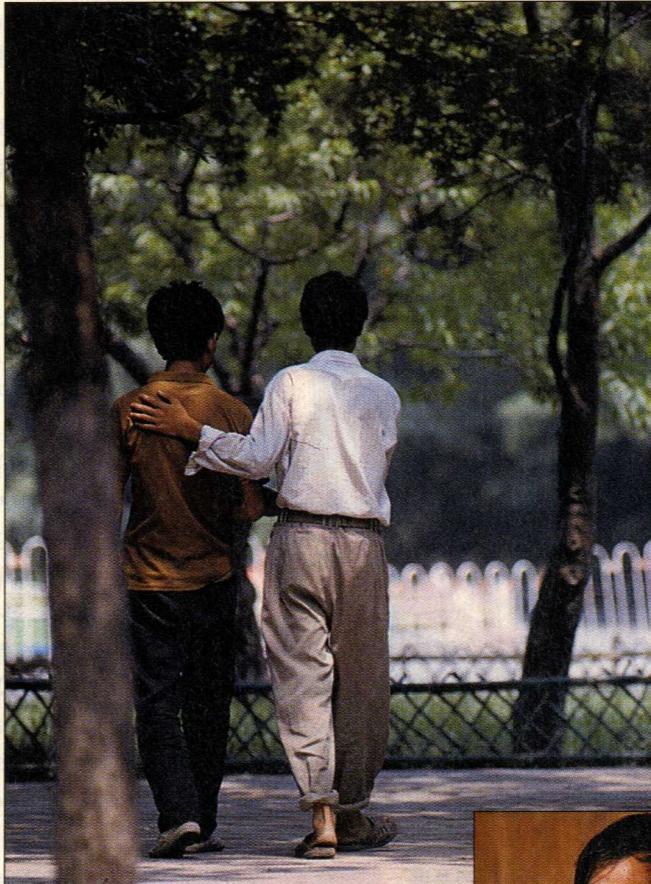
中国선 동성애가 '병이나 범죄'

不法은 아니지만 직장서 쫓겨나고 체포되기 일쑤

중국에서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은 감옥 행을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다. 90년 北京 아시안 게임 당시 리 젠취안(李建全)을 비롯한 수십 명의 현지 남녀 동성애자들은 市 전체에 걸친 대대적인 검거령에 따라 그들이 드나들던 곳에서 체포돼 경기가 끝날 때까지 구금됐었다.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게이 체육대회의 개막식을 지켜보던 李는 그 시절을 생각하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이 게이임을 밝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뉴욕에서 열린 제16차 국제 남녀 동성애자 협회(ILGA) 세계 총회에 중국측 비공식 대표로 참석한 李는 이렇게 말했다.『나라에 따라서 동성애는 병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범죄로 취급되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두 가지 부류에 전부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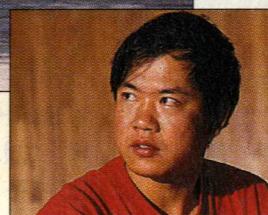
중국 내의 대부분의 남녀 동성애자들은 거리낌없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지 못한다. 동성애가 법으로 허용되고 北京 중심가의 東單公園 같은 일부 장소를 당국이 묵인해 주고는 있지만 당국의 유통성은 그 정도가 고작이다. 게이나 레스비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李의 경우처럼 부랑자 취급을 당해 체포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렇게 돼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장기복역을 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上海에서는 국립 정신병원이 게이들을 「치료」한다며 전기충격요법을 사용해왔다.

저명한 性연구 학자 류 다린(劉達臨)의 92년 조사에 의하면 중국인 3천3백만 명이 동성애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동성애가 뭔지도 정확히 모른다』고 중국의 30개 도시에서 동성애 관련 조



①동성애자들의 만남의 장소인 北京의 東單公園.

②게이 인권 운동가 李建全.



사를 하고 있는 게리 우는 말했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인 사회 관습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모두 곧바로 억압되거나 무시돼 버린다. 중국 관리들은 게이 전용 공원에서 벌어지는 일은 외면하지만 조직적인 게이 활동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동성애자用 신문도 없다. 국영 출판사는 동성애에 관한 개인 연구 결과의 인쇄를 거부한다. 지난해 北京의 유일한 국립 에이즈 「상담 전화」 소장 원 온하이(万延海, 30)는 보사부 당국에 의해 해고당했다.『그들은 내가 창녀들에게 동정적이고 동성애를 부추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교육했을 따름이다』고 말하는 그는 해고

당하기 전 게이用 상담 전화를 개설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또 게이들이 서로 어울리고 조언을 얻을 수 있었던 北京내의 유일한 실내 모임 장소였던 「男子俱樂部」를 폐쇄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동성애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었다. 漢나라에서 清나라에 걸쳐 황제들에게는 총애하

는 미소년들이 있었다. 불교와 도교 문헌에도 동성애는 죄스러운 것으로 돼 있지 않다.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묵인해주던 시기가 있었다. 92년에는 安徽省의 레스비언들이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남편과 아내」로서 동거하도록 허락받았었다. 같은 해 얼마 안 있어 전국 경찰에는 동성애자들을 구금하는 대신 그들에게 에이즈 관련 상담을 해주고 사생활을 보호해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러나 그런 관대한 지시는 드문 예다. 92년 廣東의 한 의사가 동성애를 한 죄로 8년형을 받았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사례다. 국제 사면위원회 같은 국제적인 인권 단체들은 금년 2월 범세계적인 남녀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시작했다. 투옥된 동성애자들에 관한 보고를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이다. 李는 그

의 친구 하나가 지난해 北京의 한 공원에서 애인과 싸웠다는 이유로 여전히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ILGA는 『동성애로 감금된 사람들을 모두 석방하고』 남녀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직 결성을 허용하라』고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

万延海는 에이즈 상담 전화를 신설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 중이며 北京의 「男子俱樂部」를 다시 열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李는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중국 내 남녀 동성애자들을 돋기 위한 인권 단체를 발족시킬 작정이다. 그러나 아마도 오랜 시일에 걸쳐 중국 내 남녀 동성애자들 대부분은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할 것이다.

Sudarsan Raghavan with Matt Forney in Beijing